

# Style

## 조선일보

AUGUST 2024  
vol. 272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 Style



케이스 지름 35mm와 34.5mm, 두 가지 새로운 버전으로 선보이는 바세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 컬렉션은 기존에 비해 더욱 슬림하면서도 인체 공학적인 라인으로 늘씬한 느낌을 주는 실루엣이 트렌디하고 인상적이다. 표지 속 모빌은 18K 5N 핑크 골드 모델로 아이코닉한 볼루 다 이얼을 매치하고 칼라버 1088/1을 장착했다. 케이스 백에서는 오버시즈 컬렉션의 상징인 원드 로즈 모티브로 장식한 22K 골드 로터를 감상할 수 있다. 문의 1877-430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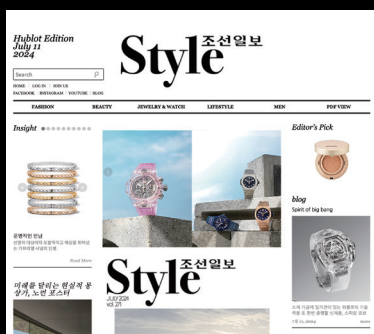
# Style

조선일보  
Issue.272 August 202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디렉터 | 장라윤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에디터 |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 신정임 sjl@chosun.com 아트 | 나는람파니  
교열 | 이종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 덕일 인쇄 | 타라티파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원로 413 현대 하이패션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12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일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www.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을 통해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리서치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시요. stylechosun.com

10 항구도시에서 마주한 국제적 미술 협업의 에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를 긴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Kaohsiung)에서 국경을 넘는 협업의 다면적 의미에 대해 생애해볼 수 있는 필자만 니를 강도 높은 미술관 산책을 다녀왔다.

12 패션으로 '삶의 예술'을 찬미하다 계층과 규범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담은 패션 디자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다카다 겐조(Kenzo Takada, 1939~2020). 그의 창조적 여정을 되짚어보는 회고전이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Tokyo Opera City Art Gallery)에서 열리고 있다.

13 HIGH IMPACT 세련된 포인트를 더하는 남성들의 주얼리 셀렉션.

14 ALL THE GOOD TIMES 정교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 바세론 콘스탄틴. 독창적 기술과 미학적 완성도,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타임피스를 추가했다.

16 CRUSH ON YOU 사철을 대표하는 켈링 모티브를 심플하고도 과감하게 주얼리에 녹여낸 코코 크라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

20 TRUE LOVE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그 순간.

30 STEP TO SHINE 깔끔한 실루엣에 심플한 포인트를 갖춘 남성용 드레스 슈츠 7.

31 PERFECT WEEKEND 즐거운 주말, 교외로 나설 때 이 가방이면 충분하다. 하나쯤은 구비해둬야 할,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춘 워렌드 빅 백.

32 EDITOR'S PICK 휴가철에도 놓칠 수 없는 피부 관리. 137퍼센트 에센셜한 뷰티템으로 시작해보자.

33 RADIANT SCENTS 많은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 가브리엘 샤넬. 한 여성으로서 진취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그녀의 인생을 넘어 그녀 그 자체를 담은 매력적인 향수, 가브리엘 샤넬에서 또 하나의 향을 선보인다.

34 HAUTE LIVING 2024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인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박람회 개최 기간에 도심 곳곳의 팔라초와 소를 등에서 여러 패션 브랜드가 라빙 컬렉션을 자마디의 방식으로 선보인다. 그중 (스타일 조선일보)가 주목하는 패션 브랜드의 라빙 컬렉션 하이라이트.

36 DIVINELY SERENE 섬을 통째로 '보금자리'로 삼는 아만폴로(Amanpulo)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라완(Palawan)의 보석 같은 리조트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펼쳐진 6.5km의 고운 해변을 걷는다는 거의 투영에 가까운 맑음을 품고 있고, 연한 청록색을 비롯해 말로 허용하기 힘든 아름다운 색채의 스펙트럼을 뽐내다.

38 BE UNIQUE 컬러와 프레임, 사이즈가 넘나들 선글라스로 완성하는 유니크한 룩.

MANUFACTURE MOVEMENT



OFFICIALLY CERTIFIED CHRONOMETER



5-YEAR WARRANTY

80H POWER RESERVE



AQUARACER  
ABOVE. BELOW. BEYOND.

갤러리야백화점 광고점 WEST 천안점 대전점 진주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본점 잠실점 인터미널점 부산본점 월드타워점 동탄점 수원점 대구점 울산점 창원점 부산광복점 광주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대구점 본점 타임스퀘어점 의정부점 경기점 하남점 대전점 천안산점 부산센텀시티점 김해점 광주점 현대백화점 더현대서울 무역센터점 목동점 신촌점 천호점 판교점 중동점 충정점 대구점 울산점 AK플라자 수원점 태그호이어 더현대서울점 02-3277-0147  
제품 및 AS 문의 \_ www.tagheuer.com/ko





이첨부터 자-까지 7겹고 빛나는 피부를 선사해줄 하이엔드 쿠션,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로에베 미니 로에베 폰트 토트** 여름의 무드와 어울리는 핑크 컬러 리피아 소재를 사용했으며 로에베 시그니처 로고를 더했다. 1백40만원, 문의 02-3479-1785  
**디올 뷰티 디올 포에버 토크업 쿠션 리필 #01 아프리카 & 디올 포에버 쿠션 케이스 베이지** 아이언의 피부 톤에 최적화된 자연스러운 컬러와 촉촉한 텍스처로 화사하고 균일한 피부 톤을 연출할 수 있다. 리필 13g 62천원대, 케이스 42천원대, 문의 080-342-9500  
**구찌 뷰티 쿠션 드 보메 2.5** 보습에 효과적인 글리콜과 글리세린 성분을 담아 하루 종일 촉촉한 피부 컨디션을 선사하며, 가벼운 텍스처로 피부에 묻힘 없이 덧바를 수 있다. 14g 10만5천원대, 문의 080-850-0708  
**아르마니 뷰티 마이 아르마니 투고 애센스 인 파운데이션 쿠션 2호** 리치 추출물, 글리세린, 하얏루몬산이 들어 있어 고보습과 클링강을 자랑하며, 피부에 온온한 광채를 선사한다. 15g 10만5천원대, 문의 080-022-3332,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이거  
하나쯤, 톡톡!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아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DREAM WATCH

지난 4월 바젤론 콘스탄틴은 특별한 컬렉션인 워치를 선보였다. 오토 쿼터로 디자인이 어칭 인의 안에서 탄생한 세련되고 독특한 디자인의 에디션 문페이즈가 주인공. 2020년 처음 선보인 컬렉션으로 여성을 위한 하이 워치메이킹 세계에서 특유의 스타일을 정밀한 에디션의 의미가 더 깊다. 오토 쿼터의 외관을 완성시키는 앙증맞은 플리츠 및 드레아프 효과를 접목한 것이 특징. 디자인과 문페이즈 속 구름에 은은한 은빛이 감도는 라움과 무아네 파르마 바이올렛 컬러의 마더오브밀을 사용해 마치 신비한 꿈을 꾸는 듯 묘한 매력과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37mm 사이즈의 케이스는 핑크 골드 소재를 적용했으며, 베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교체 가능한 세 가지 스트랩을 제공하며, 1백만 원으로 선보인다. 문의 1877-4306



# UMMER ROSE

여름에 가장 싱그러게 만개하는 장미를 품은 주얼리 3.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샤넬 화인 주얼리 가멜리아 이어링** 장미 중앙에 각 0.25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주변에 총 1.31캐럿의 84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했다. 4천9백만원, 문의 080-805-9628 **디올 파인 주얼리 로즈 디올 바가텔 네크리스** 감각적인 컬러감의 옐로 다이아몬드로 장미를 장식하고, 에메랄드로 잎을 표현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총 8.7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해 화려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피아제 피아제 로즈 링** 정교한 세공으로 완성한 장미의 디테일이 돋보이는 동시에 대방한 크기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18K 화이트 핑크 골드 소재에 총 약 0.64캐럿의 72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천6백만원대, 문의 1668-1874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윤지영**



# 찬란한 아름다움

포멜라토는 밀라노가 지난 두 가지 모습과 '불굴의 도전 정신에 바치는 헌사'라는 주제로 듀얼리즘 오브 밀라노(Dualism of Milan) 2024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51개의 주얼리 피스가 포함된 이번 컬렉션은 '단색적인 밀라노의 보물'과 '밀라노의 컬러 프리즘'이라는 2개의 주제로 구성했다. 우선 단색적인 밀라노의 보물은 포르탈루피(Portaluppi)가 설계한 천체 투영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꿈은 직선, 톤온톤의 별 조각으로 장식한 고전주의 디테일을 주얼리에 그대로 녹여냈다. 반면 밀라노의 컬러 프리즘은 지오 폰테(Gio Ponti)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에상을 뛰어넘는 컬러 조합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자연에서 탄생한 화귀하고 생동감 넘치는 원석을 활용해 색 자체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문의 02-3143-9486



# 클래식, 스타일로 기억되다

샤넬의 11.12 백은 하우스의 상징으로 지난 수년간 여러 컬렉션을 통해 다양한 컬러, 형태, 소재로 변신하며 독보적인 아이코닉으로 자리매김했다. 상황에 따라 테일의 백으로 착용하다 이브닝 백으로 변신 가능할 정도로 클래식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면모를 갖추고 있다. 레드와 함께 엮은 체인의 링크에는 하우스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를 고스란히 표현했고, CC 잠금장치는 여성들의 삶의 비하인드 신을 봉인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샤넬의 2024~25 F/W 프리 컬렉션은 관능적인 여성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컬렉션으로 짙은 브라운 컬러에서 그 매력을 한껏 느껴볼 수 있다. 문의 080-805-9628

# KEEP YOUR COOL



스타일리시함에 실용성을 더한 남성 서머 슬라이드. (위부터 차례대로) 블랙과 브라운 컬러의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을 크로스해 시그니처인 H 로고를 연출했으며,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라바 솔을 더한 샌들 1백9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외틀에서 영감받은 컷아웃 디테일 디자인이 돋보이며, LV 이니셜 로고가 버타가 녹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LV 외틀 물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브라운 컬러의 스웨이드 소재로 클래식한 무드를 완성한, 발등을 감싸주는 고미노 버틀 물 80만원대 **토즈**. 문의 02-3448-8233 포토그래퍼 **최민영** 에디터 **신정임**



# BLUE LUCK

1968년 네이 클로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반클리프 아펠의 알함브라(Alhambra) 주얼리 컬렉션은 그 자체로 행운을 상징하는 시대를 초월한 아이코닉이다. 이 주얼리 컬렉션에서 주얼 워치인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를 새롭게 선보인다. 기묘세 장식으로 완성한 옐로 골드 플러워와 블루 아케이트가 완벽하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낸다. 이 모든 플러워는 반클리프 아펠의 상징인 골드 비즈 테두리로 섬세하게 완성했으며, 블루 아케이트의 컬러 포인트가 특별함을 더한다. 스위스 퀴조 무브먼트로 작동한다. 문의 1877-4128



# FLY TO THE MOON

최초로 달에 간 시계로 유명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워치에서 새로운 베리메이션의 모델을 출시해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이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42mm 케이스에 플러싱 및 브러싱 처리한 스트랩을 적용했으며, 전완과 케이스 백에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마무리했다. 무엇보다 달에서 착용했던 4세대 스피드마스터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아 베리메이션 케이스, 화이트 레커 스타일 다이얼, 아틀리케 오메가 로고 및 인덱스, 문워치 스타일 핸즈, 이코닉한 DON(Dot Over Ninty) 디자인의 영국 신화 차원한 블랙 알루미늄 베젤 링이 특징이다. 가격은 1천백70만원, 문의 080-500-1848

# AUDEUM, 소리를 담아내는 진심의 공간

쟁쟁한 뮤지션이 펼치는 '라이브 공연'이 아님에도 요즘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화제의 공간 오디움(Audeum). 청계산(서울 서초구) 자락에 자리한 이 빈티지 오디오 뮤지엄의 인기는 언뜻 이 공간의 배경을 수놓고 있는 화려한 이름들의 조합이 빛나면 과열 현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일단 살펴보기 오디오 파일 사이에서는 예전부터 진정성 있는 빈티지 오디오 애호가로 유명한 정몽진 KCC 회장인 데다 세계적인 건축가 구마 겐고가 뮤지엄 설계를 맡았고, 국내에서도 인지도가 꽤 높은 디자인사인 하라 겐야가 브랜드를 이끌었다고 하니 그럴 법도 하다. 지난해 가을 구마 겐고의 도쿄 스튜디오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소식을 접했을 때부터 궁금했는데, 막상 실제로 공간을 보니 아예서 건축가가 대표작의 하나로 꼽는다는 얘기가 틀리는지 알 듯했다. 날씨 좋은 날, 멀리서 보면 하얀색으로 보이는 파시드를 두르고 있는데, 가까이 다가면 건물을 수직으로 갈라 22년 개 일루미네이션 파이프가 빛에 반사되면서 자아내는 효과란 걸 알 수 있다. 돌, 나무, 종이를 선호하는 구마 겐고의 전형적인 재료는 아예 아닌 카타리 풍경(風聲)처럼 은근히 사적인 오리를 뽐내며, 실내에서 보면 마치 숲속 미풍 속에서 흔들리는 기는 나무들의 세태. 데. 데. 데. 하. 안으로 들어서면 나무 마감재가 주를 이루는 공간이 펼쳐지는데, 내부로 갈수록 부드러워지는 구마 겐고표 약한 건축을 느낄 수 있다. 층고 9m가 넘는 시원한 설계로 덩치에 비해 층수(층상 5층, 지하 2층)가 적는데,



덕분에 탁 트인 시야는 물론 '보이드'로 인한 공간의 미학과 아름다운 공명이 내부에 스며들게 됐다. 1세기를 훌쩍 넘는 빈티지 오디오의 역사를 아우르는 풍부한 컬렉션도 일품이지만 관라의 팔수 코스인 청을 채웠은 그야말로 '백은'이 붙여질건. 현재 개관전 <정음(正音)>: 소리의 여왕이 진행 중인데, 특별 전시실에서는 오디오의 소장품을 담은 아카이브 사진전도 열리고 있다. 목요일 3월만 문을 연다. 홈페이지 www.audeum.org(한정 예약 불가)



# Selection

순백의 드레스와 반짝이는 주얼리, 그리고 단정한 수트와 시크한 맨 액세서리까지, 우아하고도 숭고한 한모니가 돋보이는 순간.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1 나비의 두 날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완성한 투 바틀다미 펜던트 2천5백만원  
2 웨딩 2부 파티에서 가볍게 들 수 있는 우아한 무드의 마이아크로 봉봉 울오버 펄 아이보리 새틴 미니 백, 11.5X7X12cm, 2백45만원 **지미추** 3 전체적인 웨딩 룩에 시종스로운 포인트가 되어줄 총 29.17캐럿의 이요하 양식 천주 25개와 총 2.99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2백50개를 세팅한 조세핀 아그레트 헤어 오나먼트 6천만원대 **쇼메** 4 볼드한 프랑크이 얼굴을 더 작아 보이게 연출해 줄 아세아이트 소재의 신글라스 52만5천원 **클로에** 5 보드에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로레토스 모노그램 캔버스를, 코어에는 인조 모피를 더해 귀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로레토스 라인인형 65만원 **MCM** 6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파키체체 솔리터어 파베 링 가격 미정 **타사키** 7 스텔링한 하리 라인을 강조하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실크 소재의 드레스 가격 미정 **엘리 소포클리 by 소유브라이덜** 8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정교하게 꽃 실루엣을 완성한 와플드 롤리워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9천8백70만원 **그라프** 9 7는 손목에도 잘 어울릴 23mm 케이블을 갖춘 18K 핑크 골드 소재의 로열 오크 미니 프로스트드 골드 워치 5천21만원 **오데마 피게** 10 시련 소재의 디테롭고 화려한 플리워 디테롭이 눈길을 사로잡는 플립 백, 12x20x6cm, 가격 미정 **사젤** 11 총 0.38캐럿의 6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핑크 골드 소재의 가젤리아 변형 가능한 이아령 1천2백만원대 **사젤 화인주얼리** 12 망고, 멜론, 라즈베리, 자두, 구아바와 파파야 등 열대 과일의 향긋한 아로마가 특징인 판타스틱 사젤 세트 마쉬워 750ml 가격 미정 **페르노리카 코리아** 13 화이트 토피즈, 자개, 그리고 다이아몬드의 신물한 조화가 우아함을 배가하는 누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포엘라토** 14 차분한 무드의 바스킷 컬러와 트랜치 베이저 컬러의 앙가죽으로 제작한 레오니 디올 스틸 백, 20x17x8cm, 가격 미정 **디올** 15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새틴 소재에 데이지 디테일을 가미한 이아령 반바에 데이지 스트라스 샌들 핑크 1백74만원 **로저 비비에**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지미추** 02-3443-9469 **쇼메** 02-1670-1180 **클로에** 02-517-6060 **MCM** 1600-1976 **타사키** 02-3461-5558 **엘리 소포클리 by 소유 브라이덜** 02-541-7077 **그라프** 02-2256-6810 **오데마 피게** 02-533-1351 **사젤** 080-805-9628 **사젤 화인주얼리** 080-805-9628 **페르노리카 코리아** 02-3466-5700 **포엘라토** 02-3143-9486 **디올** 02-3480-0104 **로저 비비에** 02-6905-3370

1 감각적인 컬러 그래픽이인영하 면서도 시크한 면모를 부여하는 마이아스틱 6oc 지갑 64만원 **몽블랑** 2 맛스러운 실루엣이 시크한 무드를 강조하는 신글라스 61만5천원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3 코트 소재의 포폴린 프랜키 카프 텍스처 셔츠 1백만원, 고급스러운 무드의 새틴 소재의 실크 새틴 보티니 25만원, 켄트 핸드세일드 라틴 텍스처 재킷 가격 미정, 단정한 핏의 그래픽이 핸드세일드 라틴 트라우저 가격 미정 두 **탈트 로렌 퍼블 라벨** 4 부드럽고 견고한 토고 카프 스카스로 제작한 오트 이 크루아 쿠 드 쥘레이 백, 40x36cm, 3천5백71만원 **에르메스** 5 귀여운 곰돌이 디자인의 펜디 로마 가죽 창 90만원대 **펜디** 6 오크 통에서 숙성한 후 원액을 물에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병입하는 발사로 제조해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발베니 40년 레아 메리지 700ml 가격 미정 **발베니** 7 화이트 골드와 블랙 세라미를 조합해 캐주얼하면서도 시크한 멋을 드러내는 트라니 링 2백만원대 **까르띠에** 8 이탈리아 라비마의 나뭇잎 형이 그대로 녹아있는 시트라스 향을 자랑하는 네룰리 포르토파노 퍼플 50ml 61만3천원 **통 포드 뷰티** 9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브레이슬릿 1천4백40만원 **프레드** 10 도화적인 무드를 강조하는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비제리온 네크리스 9백45만원 **불가리** 11 단정한 웨딩 수트에 심플한 포인트가 되어줄 로즈 골드 소재의 러브 노트 카프스 링크 1천2백76만원 **그라프** 12 42mm 스틸 케이스에 블랙 세라미의 600년 단방향 최전 배젤을 장착한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5만5천원 **태그호이어** 13 최고급 아노다이즈드 알루미늄으로 제작하고 독보적인 그루브 패턴 디자인이 특징인 오라자널 파밍워, 42x50x23cm, 2백13만원 **리모와** 14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카프 스킨 소재 세트자온 워크 로퍼 1백75만원 **로로피아나**

**몽블랑** 1877-5408 **생 로랑 by 안토니 바카렐로** 02-517-6060 **탈트 로렌 퍼블 라벨** 02-3438-6235 **에르메스** 02-542-6622 **그라프** 02-2256-6810 **프레드** 02-514-3721 **발베니** 02-2152-1600 **불가리** 02-6105-2120 **통 포드 뷰티** 02-6971-3211 **태그호이어** 02-3277-0147 **까르띠에** 1877-4326 **펜디** 02-544-1925 **로로피아나** 02-546-0615 **리모와** 02-546-3920





가오슝(Kaohsiung) 미술관 산책

# 항구도시에서 마주한 국제적 미술 협업의 예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대만은 근현대사를 놓고 볼 때 한국과 닮은 면이 많다. 깊은 상흔을 남긴 전쟁과 식민지화,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는 수식어를 꺾차게 한 가파른 경제성장, 민주화의 진통과 높은 교육열. 최근의 문화 예술계 동향을 보자면 외국 자본이 주도한 아트 페어가 활발히 전개되고, 자금력을 앞세운 민간 기업의 '아트 마케팅'이 눈에 띄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도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물론 비슷한 궤적만큼이나 다른 면모도 많다. 바로 그 같은 묘한 닮음과 차이의 매력에 바다 너머 멀리까지 도시 탐방에 도전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리나라 부산처럼 항구를 낀 대만 제2의 도시, 가오슝(Kaohsiung)에서 국경을 넘는 '협업'의 다면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짧지만 나름 강도 높은 미술관 산책을 다녀왔다.



수년간 지속된 코로나 시기를 전후로 여러 차례 찾게 된 대만. 첫 방문지인 수도 타이베이를 위시해 마치 도장 깨기처럼 주요 도시들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여행했는데, 매번 고 속열차(HSR) 노선에서 더 남쪽에 자리한 주요 도시를 하나 씩 목록에 더해나가는 식이었다. 타이베이 → 타이중 → 타이난 하는 식으로 말이다. 물론 길지 않은 일정을 틈탄 미술관 위주의 방문이었으니 '이 도시를 섭렵했노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늘 그렇듯 주제가 있는 여행은 꽤 밀도 높은 경험과 지식을 안겨준다. "뮤지엄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생각을 보여주는 장소"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앙드레 말로). 또 어떤 미술 사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다. "뮤지엄의 소장품에 대해 논쟁한다는 것은 곧 그 가치와 도덕성, 나아가 정체성을 논하는 것과 같다. 뮤지엄 관람은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을 끝없이 찾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도미니크 폴로). 솔직히 현지에서는 진중한 논쟁거리나 스스로의 정체성 찾기에 골몰할 여유를 가진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소장품은 다시 볼 수 있다 해도 기획전 형식의 콘텐츠는 도록과 기억

만 남기고 사라지기에 타고난 성향에도 맞지 않는 듯한 '부지런'을 떨면서 하나라도 놓칠세라 꽤 땀뻑한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섬세한 경험은 반드시 어딘가에 예리하게 자리 잡는 듯하다. 짧은 감상 속에서도 의미 있는 단상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깨달음이 나 사유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만한 반짝이는 순간을 마주하기도 한다. 그리고 얼마 전 '목록'에 추가한 대만 남부의 항구도시 가오슝(Kaohsiung)에서는 동서를 잇는 협업의 스토리텔링을 만났다. 언뜻 화려한 듯 특별한 것까지는 없는 '물 건너 온 전시' 같은데,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여러모로 흥미로운 면면이 엮이는데 기획전이다(어떤 관점과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못 여러 의견이 나올 만한).

**런던에서 날아온 기획전, 현대미술 거장들이 한자리에**  
지난 4월 말, 영국 런던에서 막을 내린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전. 런던을 상징하는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거의 1년 가까이 열린 기획전으로 지난 6월 말 가오



슝 시립 미술관(KMFA, 高雄市立美術館)에 상록했다. 전시 제목처럼 1백 년 동안 회화와 사진의 관계를 탐구한 이 전시는 일단 작품 목록이 화려하다. 예컨대 전시의 첫 번째 섹션인 '사진 시대의 회화'에서는 20세기 사진이 가져온 도전과 충격에 대응해 화가들이 발전시켰던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이는데,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를 위시해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 앨리스 닐(Alice Neel), 도로시아 랭(Dorothea Lange)이 포함돼 있다. 예술가들이 회화적 재료와 기술을 활용해 구성의 미학을 이뤄낸 방식을 보여준 두 번째 섹션인 '긴장'에서는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파울라 레구(Paula Rego), 세실리 브라운(Cecily Brown), 조지 콘도(George Condo) 등 쟁쟁한 이름들이 보인다. 이어 아마도 가장 눈길을 끄는 작품 중 하나일 제프 월(Jeff Wall)의 1993년 작 <대형 작품 'A Sudden Gust of Wind(after Hokusai)'가 전시된 '회화를 사진으로(Painting into Photography)' 섹션, 토마스 슈트루트(Thomas Struth), 칸디다 호퍼(Candida Höfer), 안드레아스 거스키(Andreas Gursky), 스기모토 히로시(Hiroshi Sugimoto) 같은 현대 사진 미술의 거장들이 출저어 등장하는 '회화로서의 사진(Photography as Painting)' 섹션, 그리고 독일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이 시선을 절로 훑치는 '역사를 포착하다(Capturing History)' 섹션 순으로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의 키 비주얼로도 쓰인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자화상(실크스크린 작품)', 영국 출신의 '거성' 작가들인 피터 도이그(Peter Doig)와 데이비드 호크니(David Hockney)의 대형 회화 등을 선보인 여섯 번째 섹션 '컨버전스(Convergence)'가 자리한다. 작가의 이름값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작품의 면면도 대체로 빼어나다. 작품 수 자체는 그리 많지 않지만(55점) 미술 애호가라면 외면하기 힘든 구성의 전시다. 특히 서구 작가 대다수라 아시아 도시에 거주하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반가운 전시일 수 있다. 필자 개인적으로도 리히터의 수작이라든가 피터 도이그의 1990년대 대작, 미리암 칸(Miriam Cahn)의 커다란 캔버스 작품을 육안으로 접하는 등 '예정'하는 작가들 작품을 접해 즐거웠다. 사실 이 전시는 '스타 라인업'에 비해 런던 현지에서는 (적어도) 언론의 대대적인 호응을 받지 못했다. 작품은 빼어나지만 '백락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회화와 사진의 관계'라는 그럴듯한 미끼를 던졌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서사가 풍부하지 않고, 작품 선정도 일부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평이다.

## 작지만 화려한 라인업, 동서양의 컬렉션을 엮은 협업

가오슝 전시 현장을 둘러싼 분위기는 다를 것 같다(전시 초기에 방문하기는 했지만 '열기가 느껴졌다'). 이러한 온도 차는 아무래도 전시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이 달라서가 아닐까 싶다. 그 출발점부터 살펴보자면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는 동서양이 만난 협업전이다.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미술 플랫폼인 테이트의 소장품과 대만의 기업가이자 유명한 미술 컬렉터인 피에르 첸(Pierre

Chen, b. 1956) 이끄는 야게오 재단(YAGEO Foundation) 소장품이 힘을 합쳤다. 이번 가오슝 협업전의 작품 구성을 보면 테이트 소장품 34점, 야게오 재단 소장품 21점으로 이뤄져 있다. 테이트 관장을 지냈던 니컬러스 세로타가 제작하고 있던 당시 피에르 첸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시작되어 한참 만에 실제로 구현됐다는 이 전시는 동서양 미술 기관의 만남이기는 한데, 하나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자랑하는 미술관이고, 하나는 개인 컬렉터의 소장품을 담당하는 사립 재단이다. 어찌 보면 피에르 첸의 화려한 컬렉션(이번 기획전에서는 스기모토 히로시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서구 작가의 작품만 포함됐지만)을 런던에 소개하는 전시이기도 했던 것이다. 가오슝을 찾은 테이트 모던 국제 미술 컬렉션 디렉터 그레고르 무어(Gregor Muir)는 "어떤 사람들은 가장 비범한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의 컬렉션을 보고 어떻게 협력할지 고민하고 풀어내는 일은 정말로 즐거운 작업"이라며 "수집은 일종의 예술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많은 컬렉션과 협업하는 건 멋진 일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장품 전시는 대개 '방향성'으로 전개되는 일 반 전시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어 큐레이터로서도 흥미롭다는 얘기가.

"이런 전시를 기획하는 일은 '통합'에 가까워요. 우리가 가진 것, 그들이 가진 것이 있고, 거기에서 '연결 고리(connections)'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는 일례로 야게오 재단에서 소장한 안드레이아스 거스키의 작품 'May Day IV'(2000) 옆에 걸린 테이트의 거스키 소장품 'Paris, Montparnasse'(1993)를 한 공간에서 감상하는 건 매력적이라고 했다. 따라서 이번 협업전은 '주제가 있는 소장품 전시'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이 전시는 애초에 그런 윤곽으로 다기였다. '사진+회화'라는 주제에 꽃기보다는 야게오 재단의 소장품 목록을 훑어보고는 피에르 첸부터 검색하게 됐다. 동양의 부유한 컬렉터가 영국인들에게 조금 낯설 수는 있어도 처음부터 한 예 호기의 현대미술에 대한 사랑과 수집 과정에 더 초점을 맞춘



스토리텔링으로 엮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런던 전시에서는 그의 소장품 중 동양권 작가들에 비중을 두고, 가오슝 전시에서는 (지금처럼) 서구 작가들이 주로 소개되는 구성을 했다면 균형 잡힌 재미가 있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가오슝에서는 홍보 방향 자체가 달랐다. 가오슝 시립 미술관은 "티켓 한 장이면 (테이트 모던의 기획전에서 전시된) 세계적인 걸작을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런던 바깥에서는 유일무이하게 가오슝에서만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테이트'라는 브랜드와 피에르 첸이 근사하게 병치되는 구도를 마다할 현지인은 별로 없을 것이다. 더구나 타이난 태생이지만 가오슝에서 자라 '고향'처럼 애뜻한 집단을 지닌 듯한 피에르 첸은 이 전시가 작품 대여료 없이(양 기관 모두) '순수한' 협업으로 진행되었음을 밝히기도 했다(이 전시가 다른 도시로 '순회'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 정부도 기꺼이 지원에 나섰다. 특히 올해 개관 30주년을 맞이한 만큼 30세 미만 관람객들에게는 무료 관람 기회를 제공했다(전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다른 기관에서 콘텐츠를 통째로 빌려 오는 순회전이 많은 요즘 시대에 기획자라면 현지의 감성과 실익을 따지는 '협업'의 역할을 고심해야 할 것 같다. **글 고성현** 가오슝 현지 취재

**1** 대만 제2의 도시인 가오슝을 대표하는 공공 미술관 가오슝 시립 미술관(The Kaohsiung Museum of Fine Arts, KMFA)에서 지난 6월 말 막을 올린 특별전 <Capturing the Moment: A Journey Through Painting and Photography> 전시 모습. 영국 런던을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열렸던 전시의 대만 단독 순회전이다. 테이트 소장품과 대만 대의 60대 기업가이자 컬렉터 피에르 첸(Pierre Chen)이 이끄는 야게오 재단의 소장품으로 구성된 전시로 양 기관의 소장품이 여러 점 걸려 있다. 장면에 보이는 벽에는 2018년 당시 작가의 경매가 산점으로 화제가 됐던 데이비드 호크니의 대작 <Portrait of an Artist(Pool with Two Figures)>(1972)가 보인다(야게오 재단 소장품). 이미지 제공: KMFA 2 가오슝 시립 미술관 부지에 있는 생체 예술원. **3** Jeff Wall, 'A Sudden Gust of Wind(after Hokusai)'(1993). 일본 목판화, 우유에 대가 기쁘스카 호쿠사이의 19세기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사진 작품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따로 촬영해 디지털 합성했다. 229x377cm, 테이트 소장품. Courtesy of the artist **4** 가오슝 시립 미술관 전시장에서 테이트 소장품인 루시안 프로이트(Lucian Freud)의 유화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5** 스위스 작가 미리암 칸(Miriam Cahn)의 강렬한 유화 작품 'The Beautiful Blue'(2008~2017). 테이트 소장품(Purchased with funds provided by The Joe and Marie Donnelly Acquisition Fund 2020). © Miriam Cahn **6** 영국 작가 피터 도이그(Peter Doig)의 1990년대 작품인 대형 유화 'Canoe Lake'(1997~98)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다. 야게오 재단 소장품. **7** 독일 현대미술 거장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작품 'Two Candles'(1992). © Gerhard Richter 2024(05032024). **8** 일본 사진 미술 거장 스기모토 히로시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관람객. 야게오 재단 소장품. Photo: YAGEO Foundation **9** 20세기 중반 군용 속소였던 건물을 현대미술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아옌관(옌아트 센터(Alien Art Centre)). 2016년 설립된 아옌 센터는 이렇처럼 외관을 담은 독특한 건축물로 가오슝 미술계의 명물이다. **10** 건축가 류웨이(劉偉偉)가 설계한 나옌웨이아트 센터(Nakwei Arts Center) 외관. 안장해 있는 가오슝 시립 미술관, 영화관, 어린이 미술관 등이 함께 실속의 예술, 예술 속의 삶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아트 센터로 전시공간, 카페 등이 들어서 있다. ※ 2, 4, 6, 9, 10 Photo by 고성현







1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 회고전

## 패션으로 ‘삶의 예술’을 찬미하다

계층과 규범을 뛰어넘는 자유로움과 즐거움을 담은 패션 디자인으로 한 시대를 풍미한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 1939~2020). 20대 청년 시절, 프랑스로 향한 그는 5월 혁명 정신과 맞닿은 진취적인 디자인 철학으로 1970년대 파리 패션계에서 성공한 최초의 동양인 디자이너로서 입지를 다졌고, 훗날 ‘겐조(KENZO)’라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키워냈다. 2020년 코로나 합병증으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그의 창조적 여정을 되짚어보는 회고전 〈Chasing Dreams〉가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7월 6일부터 오는 9월 16일까지). 시대에 따라 새로운 이야기와 의미를 부여하며 거듭 진화해나간 패션 거장의 역동적인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는 장이다.

파리에 당찬 도전장을 내민 젊은 이방인

1939년 2월 27일 일본 후고현 히메지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다카다 겐조(Kenzō Takada)는 어릴 때부터 문화 예술에 대한 천재감과 관심도가 남달랐다. 그의 부모님은 히메지 성 북쪽에 있는 고급 유충 사설인 나니와로(浪花楼)를 운영했는데, 덕분에 겐조는 게이샤들의 연주와 노래를 들으며 성장했다. 또 누나들 옆에서 섬세한 미의식과 감성을 키우며 패션에 눈을 떴지만, 부모님의 뜻을 따라 고베 외국어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패션에 대한 갈망은 결국 그를 도쿄 분카 패션 칼리지로 이끌었고, 졸업 후 의류업체 산야이(三愛)에서 디자이너로 첫걸음을 내디뎠다. 늘 더 큰 세상을 꿈꾸던 그는 1964년 배를 타고 프랑스 파리로 향한다(대여행에서 들른 기항지에서 본 다양한 민족 의상은 이후 작품의 주요 모티브가 됐다). 프랑스어도 잘 못하고 인맥도 없던 젊은 이방인 겐조는 호기롭게 스케치만 들고 패션계의 문을 두드렸다. ‘루이 페로(Louis Féraud)’ 부티크를 시작으로 〈엘르(ELLE)〉 등 유력 패션지로부터 스케치에 대한 호평을 받으면서 그는 차츰 파리에 정착하게 된다.

겐조가 프랑스로 이주한 지 4년 뒤, 서유령을 뒤쫓은 ‘68혁명’이 5월 파리에서 시작됐다. 기성세대의 권위에 반발한 학생들과 노동조합이 주도한 이 사회운동은 자유와 해방의 가치를 강조하며 패션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오트 쿠튀르(고급 맞춤복)’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가치관을 담은 ‘프레타 포르테’가 부상했고, 이는 겐조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1970년, 그는 부티크 ‘정글 잼(Jungle Jap)’을 열고 자유와 해방감을 은유적으로 풀어낸 패션으로 ‘목화의 시인(綿の詩人)’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그는 일본 전통 직물과 패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한 스타일을 선보였고,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버무려 자신만의 패션 언어를 완성해 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관과 조응하며 그를 패션계의 총아로 부각했다.

모든 ‘낯섦’을 새로운 미감으로 승화하다

그가 파리를 넘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무대를 호령하게 된 계기는 오버사이즈 패션인 ‘빅 룩(big look)’에서 시작됐다. 몸의 곡선을 따르는 대신 넉넉한 원단과 여러 소재를 활용한, 신체와 의상 사이 여유 공간에서 나오는 맛은 참신하게 다가갔다. 이 여유 공간은 자유를 갈망하던 이들에게 해방감으로 여겨진 동시에 편안한 움직임의 담배는 그릇이 됐다고 평론가들은 말한다. 컬렉션마다 독창적인 테마와 트렌드를 선도하며 패션계를 흥분시킨 겐조는 당시 연습했던 파리 패션계의 쇼 형식도 깼다. 모델들이 음악에 맞춰 자유롭게 걸으며 관객과 함께 즐기는 파티 형식의 패션쇼로 새 장을 연 것이다. 이 같은 아이디어의 중에는 ‘놀이’의 정신이 있었다. 이는 창작을 지탱하는 큰 원천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추후에 자신의 브랜드 겐조를 일게 한 원인이기도 했다. 1993년 LVHM 그룹에 자신의 브랜드를 매각한 후에도 디자인을 이룬 그는 경영 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결국 물러났다. 1999년 10월, 파리 북쪽 콘서트홀에서 열린 겐조의 마지막 쇼는 그의 창작력을 집대성하듯, 거대한 스크린과 2백 명이 넘는 모델, 그리고 실제 백마(기) 등장시킨 작품이었다. 이후 그는 아테네 올림픽 일본 선수단의 유니폼을 디자인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고, 프랑스 예술문화훈장을 비롯한 다양한 상을 받으며 업적을 인정받았다.



2



새로운 세계에서 마주한 모든 ‘낯섦’을 자신만의 미적 감각으로 해석해 패션사의 한 장을 쓴 다카다 겐조. 그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패션을 넘어 예술과 문화를 융합한 선구자로 기억된다. 어쩌면 패션의 ‘오래된 미래’를 상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의 찬란한 유산을 전시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번 회고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체험을 주기도 한다. 오는 9월 중순 도쿄에서는 막을 내리지만 2025 세토우치 트리엔날레 기간에 맞춰 내년 4월부터 순회전 형식으로 겐조의 고향에 있는 히메지 시립 미술관(Himeji City Museum of Art)에서 더 큰 규모로 개최될 예정이다.

글 박혜진(도쿄·히메지 취재) Edited by 고성연



3



4



5

1 한 시대를 풍미한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의 회고전이 열리는 도쿄 오페라 시티 아트 갤러리에 걸린 사진. 전시장 안부를 지나 들어가면 한쪽 벽면에 크게 걸린 사진으로 겐조가 파리에 서 자신의 부티크 ‘정글 잼’을 오픈한 1970년 11월의 모습이다. © Hiroyuki Iwata 2 니트, 투피스, 모피 등 다양한 소재와 넉넉한 선을 활용한 대담한 실루엣의 ‘빅 룩’ 시리즈 중 1977~78 A/W 컬렉션. 3 세계 각국의 민족 의상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포플로 어 룩을 미치(문화)처럼 역동적으로 표현한 모습. © Takahashi Kenji 4 겐조의 드로잉(1977~78 A/W). 5 겐조의 1965~66 A/W 컬렉션(드레스, 코트, 긴 슬 등). Bunka Gakuen Fashion Resource Center 6 겐조의 1987~88 A/W 컬렉션(드레스, 바레오 등). Bunka Gakuen Fashion Resource Center 7 다카다 겐조 생가(현재는 철거되고 맨션이 들어서 있다) 근처에 있는 히메지 생가(이 사진은, 위대한 천수각 박물관에 백로생(白鶴)으로도 알려져 있다. 천수각은 일본의 국보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며, 1930년에는 히메지 성 천황가 세대로 화유신으로 등극했다. 8 히메지 출신인 다카다 겐조가 히메지 시에 있는 문화 복합 시설인 아레아(Areia)를 위해 디자인하고 기부한 무대 커튼. ※ 2, 4~8 Photo by HY Park



(유부터 차례대로) **파이페 포제션 링** 매종의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매력을 지니며, 회전 모티브를 담아 세련되고 유쾌한 느낌을 주는 링으로 18K 화이트 골드에 0.03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완성했다. 6백40만원대. 문의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시그니처 브레이슬릿** 섬세한 골드 비즈로 만들어진 유쾌한 감성과 디자인이 특징인 베를리 라인에서 XL 사이즈로 출시한 18K 옐로 골드 브레이슬릿. 제품에 새긴 반클리프 아펠 사칭 아래베 스크가 아이코닉함을 더한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부쉐론 파트로 코발리트 링** 프랑스어로 숫자 4를 의미하는 파트로의 네 가지 밴드로 아이코닉한 스타일을 완성한 컬렉션이다. 독특한 유리화 공정을 통해 산업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해 얻은 코발리트® 소재를 사용해 제작했다. 여가 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77-0148 **프레드 포스텐 브레이슬릿** 매종의 아이코닉한 화이트 골드 포스텐 모티브를 베를리에 매치한 브레이슬릿으로, 네이비 블루 텍스타일로 이루어진 스트랩을 매치해 세련되고 쿨한 감성을 준다. 1천9백52만원. 문의 02-514-3721 **불가리 비제로원 락 브레이슬릿**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하고 대담한 스타일이 돋보인다.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 나선을 따라 스트라드와 블랙 세라민으로 시크한 라인으로 모던한 무드를 가미했다. 1천2백90만원. 문의 02-6105-2120 **사벨 화인 주얼리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클래식의 장악인 사벨이 만들어낸 아이코닉한 주얼리 컬렉션으로 하우스의 상징인 칼팅 디테일이 돋보인다. 18K 옐로 골드 완성해 남녀 모두 잘 어울린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티파니 티파니 T 컬렉션 T1 링** 브랜드명이자 상징적인 T를 모티브로 대담하고 모던하게 디자인해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티파니 T 컬렉션. 18K 옐로 골드 소재 밴드에 총 0.21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하프 세팅해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 가격 미정. 문의 1670-1837

에디터 성정민

# High impact

세련된 포인트를 더하는 남자들의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 All the good Times

정교한 하이엔드 워치메이킹의 정수, 바쉐론 콘스탄틴. 그들만의 독창적 기술과 미학적 완성도, 그리고 최고의 장인 정신과 마감 기법을 바탕으로 오버시즈 컬렉션과 패트리모니 컬렉션에 새로운 타임피스를 추가했다. photographed by jae yong park

(위부터 차례대로) 42.5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두 가지 컴플리케이션을 구동하는 패트리모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39mm 케이스에 감각적인 아주르 블루 컬러의 스트랩을 장착한 패트리모니 매뉴얼 와인딩 가격 미정 모두 **바쉐론 콘스탄틴**.

## 감각적인 그린 다이얼

바쉐론 콘스탄틴은 2024년 워치스 & 원더스에서 오버시즈 컬렉션 최초로 감도 높은 그린 컬러의 다이얼과 교체 가능한 스트랩을 갖춘 핑크 골드 모델을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였다. 새로운 그린 컬러의 매력을 강조하기 위해 마감 기법에도 섬세함을 더했는데, 깊이감이 느껴지는 선버스트 새틴 브리싱 마감으로 우아한 품격을 강조하고, 벨벳 마감 기법을 적용한 플랜지에서는 정교함이 느껴진다. 여기에 슈퍼-루미노바® 처리로 강조한 골드 아워 마커와 핸즈가 짙은 다이얼 컬러와 대비를 이루면서 탁월한 가독성을 부여한다. 새로운 모델은 35mm 젼 세팅부터 41mm 데이트, 42.5mm 크로노그래프, 41mm 듀얼 타임까지 총 네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었고, 150m 방수 기능을 갖춘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장착했다. 무브먼트에는 컬렉션을 상징하는 윈드 로즈를 인그레이빙한 로터를 갖추고, 다른 오버시즈 워치와 마찬가지로 폴딩 버클로 손쉽게 조정 가능한 핑크 골드 브레이슬릿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다. 브레이슬릿 대신 편버클을 더한 카프 스킨 레더 스트랩이나 그린 러버 스트랩으로 교체해 다양한 스타일로 즐길 수 있다.

## 확고한 미니멀리즘

1950년대 미니멀한 시계 디자인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패트리모니 컬렉션은 완만한 곡선과 심플한 라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더니티 DNA를 이어받아 패트리모니 컬렉션에서 새로운 지름, 다이얼, 스트랩 컬러가 돋보이는 세 가지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먼저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소재의 두 가지 매뉴얼 와인딩 워치는 어떤 손목 사이즈에나 편안하게 착용 가능한 지름 39mm로 선보인다. 볼록한 다이얼에 선버스트 마감한 표면과 새로운 올드 실버 톤 컬러가 조화를 이루며 워치메이킹 하우스 고유의 미학을 담아냈다.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 또한 새로운 아주르 블루 및 올리브 그린 같은 독창적인 컬러로 선보여 컬렉션에 신선한 감각을 추가했다. 바쉐론 콘스탄틴이 개발하고 직접 제작한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1440으로 구동하며, 42시간의 파워리저브를 제공한다. 또 하나의 워치는 패트리모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다. 42.5mm 화이트 골드 케이스이며, 선버스트 올드 실버 톤 컬러 다이얼은 핸즈 및 아워 마커에 적용한 핑크 골드와 대비를 이룬다. 6시 방향에는 문페이즈 인디케이션이 위치하고, 다이얼 상단부에서는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인하우스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 R31L을 탑재했으며, 새로운 올리브 그린 컬러의 엘리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장착해 타임피스 전체에 생동감을 선사한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윤지경**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3시 방향에 날짜창을 더한 41mm 케이스의 오버시즈 셀프-와인딩, 9시 방향에는 낮과 밤을 표시하는 창이, 6시 방향에는 날짜창이 조화롭게 자리한 오버시즈 듀얼 타임, 베젤에 90개 러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35mm 사이즈의 오버시즈 셀프-와인딩 모두 가격 미정 **바쉐론 콘스탄틴**.

바쉐론 콘스탄틴



# Crush on You

샤넬을 대표하는 킬링 모티브를 심플하고도 과감하게 주얼리에 녹여낸 코코 크러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 매해 새로운 변형을 통해 컬렉션의 범주를 넓히고 있다. 올해 7월, 샤넬은 성수동에 새롭게 추가된 여섯 가지 주얼리를 선보이고, 컬렉션을 기념하는 코코 크러쉬 팝업을 마련했다.

샤넬이 코코 크러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 론칭을 축하하고, 코코 크러쉬를 사랑하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코코 크러쉬 팝업, 코코 램을 성수동에서 진행했다. 지난 2018년 국내 첫 번째 코코 크러쉬 팝업 코코 램 이후 6년 만에 개최한 이번 팝업은 크러쉬 라이브러리, 크러쉬 게이밍, 크러쉬 살롱, 크러쉬 락스미스 등 4개의 크리에이티브 콘셉트 공간으로 구성했다. 우선 크러쉬 라이브러리에서는 코코 크러쉬 주얼리를 자유로이 시작하며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발견하고 샤넬의 매력을 정의할 수 있었다. 여러 코코 크러쉬 주얼리를 한자리에 다양하게 레이어링해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던 공간, 크러쉬 살롱에서는 코코 크러쉬 스티커로 네일을 장식할 수 있고, 크러쉬 락스미스에서는 'Crush Story'라는 글귀가 새겨진 작은 자물쇠를 증정했으며, 크러쉬 게이밍에서는 코코 크러쉬 모터브의 캐릭터가 악당을 피해 코코 크러쉬 링을 수집하는 재밌고 특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다. 또 이번 팝업은 샤넬이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제공하는 익스클루시브 서비스와도 연관되어 있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의 샤넬 코코 크러쉬 디지털 팝업에서 코코 크러쉬 주얼리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고객들은 카카오톡을 통해 예약한 후 코코 크러쉬 팝업 오픈 라인을 방문하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그곳에서 주얼리를 픽업했다. 이번 팝업에는 샤넬 앰배서더 제니, 박서준과 디보이즈 영훈,

1 샤넬 화인 주얼리로 개성 있는 레이어링 스타일링을 선보인 샤넬 앰배서더 제니. 2 크러쉬 락스미스 공간에서 증정받을 수 있었던 'Crush Story'라고 새겨진 귀엽고 사랑스러운 자물쇠. 3 거대한 코코 크러쉬 링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습의 근사한 조형물이 설치된 팝업 공간. 4 총 0.85캐럿의 6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옐로 베이지 화이트 골드 소재의 킬링 모터브 코코 크러쉬 다이아몬드 스몰 링.



스트레이키즈 승민, 김소현, 전여빈, 조보아, 이재욱, 공명, 최수영, 코드쿤스트, 김나영이 참석해 코코 크러쉬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코코 크러쉬 화인 주얼리 컬렉션은 1995년부터 샤넬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킬링 모티브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매번 새로운 변형을 통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팝업을 통해 오로지 한국에서만 먼저 출시되는 새로운 아이템을 선보여 코코 크러쉬 컬렉션의 영역을 다시 한번 확장했다. 총 여섯 가지 주얼리가 컬렉션에 추가되었는데, 우선 사각 킬링 모티브가 새겨진 둥근 표면의 링에 프롱 세팅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을 차분하고 고급스러운 옐로 골드와 조금 더 여성스러운 무드의 베이지 골드, 그리고 심플한 느낌의 화이트 골드 소재로 선보인다.





1 코코 크러쉬만의 시그니처 컬러인 베이지 골드와 화이트 골드, 옐로 골드 색상의 작은 자물쇠를 제공하는 이벤트 공간으로,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열쇠까지 함께 제공해 패션 액세서리로 활용하기 제격이었다. 2 코코 크러쉬 컬렉션의 베스트셀러 아이 링과 이반에 출시한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간. 3 코코 크러쉬 컬렉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크러쉬 라이브러리 공간. 4 코코 크러쉬 모티브의 캐릭 타기 게임을 통해 코코 크러쉬 링을 수집하는 재미있고 특별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던 크러쉬 게임팅. 5 코코 크러쉬 팝업 행사를 빛내준 화수영, 공경, 강-영. 6 팔링 모티브의 18K 옐로 골드와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싱글 이어링. 7 베이지 골드,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8 성수동에서 열린 코코 크러쉬 팝업 공간. 9 코코 크러쉬 링을 심플하게 더블 매치한 박서준.



그 밖에 다양한 믹스 매치가 가능한 옐로와 베이지, 화이트 골드 소재의 미니 후프 이어링까지 선보여, 샤넬 화인 주얼리 코코 컬렉션의 시대를 초월한 클래식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 세팅 유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또는 베이지 골드 소재의 새로운 미니 브레이슬릿 또한 2024 신제품으로 선보였다. 기존과 다른 특별한 점은 독자적인 인비저블 회전 잠금 장치인 코코 트위스트(COCO TWIST)를 적용해 가볍게 돌려주기만 하면 손쉽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링과 링, 그리고 브레이슬릿까지 더욱 다채로워지고 아름다워진 코코 크러쉬의 세계를 경험해보자. 문의 080-805-9628, [www.chanel.com](http://www.chanel.com) 에디터 **윤지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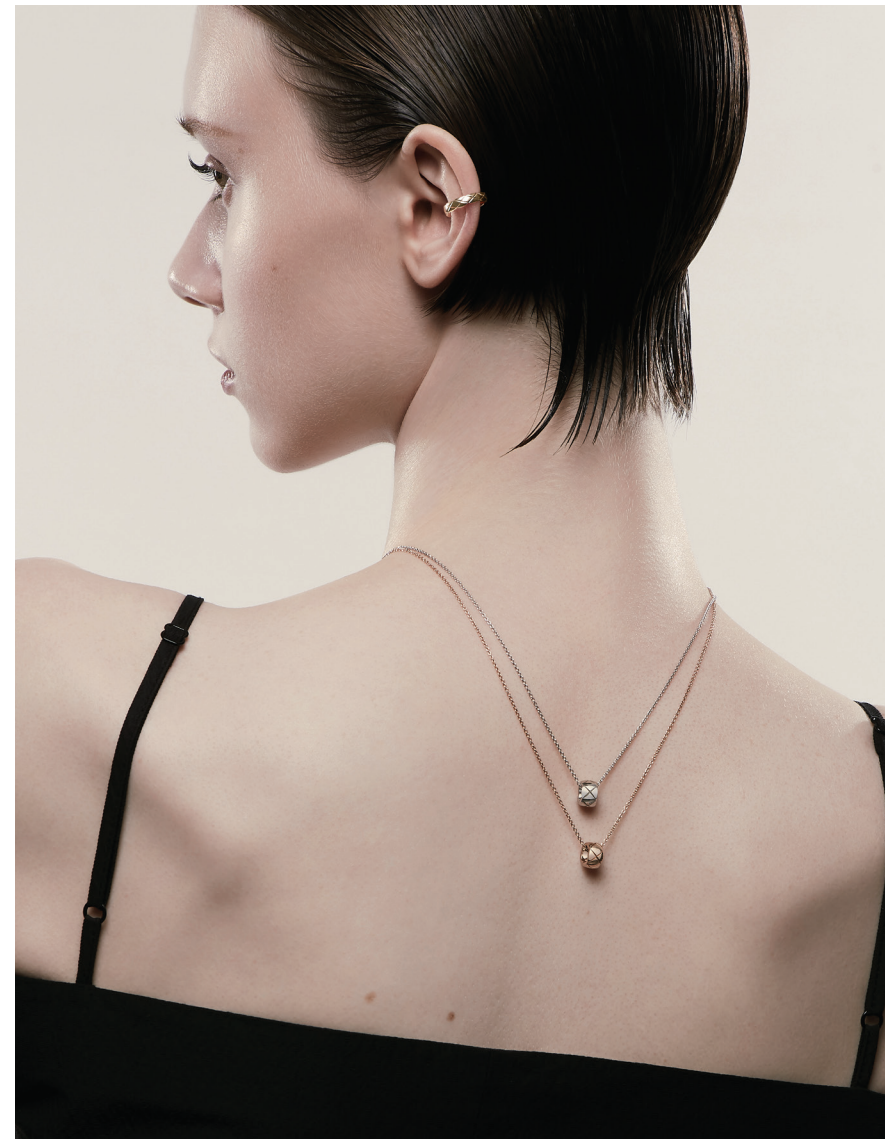
# True love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 되는 그 순간.  
photographed by kim heung soo

(여자) 펠링 모티브의 화이트 골드 소재에 총 0.5캐럿의 다이아몬드 5개를 세팅한 코코 크래쉬 다이아몬드 싱글 이어링 2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케사미어 소재의 자지 크루네 스웨터 1백5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남자)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싱글 이어링 2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코코 크래쉬 스물 링 4백만원대,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레이어링하기 좋은 사이즈에 샤넬만의 베이지 골드로 완성한 코코 크래쉬 미니 브레이슬릿 7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100% 코튼 소재의 포켓 디테일 포폴린 하모이언 셔츠 1백86만원 **틀체엔가바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픈 형태의 브레이슬릿으로 양쪽에 장식한 플라워 모티브가 고급스러움을 부각하며 총 1.18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 와일드 플라워 컬렉션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가격 미정 **그라프**. 심플하지만 총 약 1.3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백19개를 정교하게 세팅해 화려한 멋까지 선사하는 피아제 스위프트 링 가격 미정 **피아제**. 비대칭으로 손목을 감싸는 골드 비즈가 마치 춤추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총 2.11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옐로 골드 소재의 베를리 다이아몬드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하우스만의 아이코닉한 세공법이 느껴지는 디테일이 특징인 화이트 골드 소재의 마크리 클래식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부헬라티**. 여성스러움과 세련된 무드를 겸비한 부채 모티브는 카라칼라 스파의 로만 모자이크 패턴에서 영감받아 완성했다.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디버스 드림 이어링 1천8백90만원 **불가리**.



18K 옐로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싱글 이어링 2백만원대, 클래식한 펠링 모티브가 매력적인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래쉬 네크리스 4백만원대, 샤넬만의 베이지 골드 소재의 컬러가 돋보이는 코코 크래쉬 네크리스 3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여성성을 강조한 주름 장식과 앞부분 드레이프가 포인트인 슬리브리스 블라우스 29만원 **YCH**.





그라프만의 퀄리티 높은 5.06캐럿 쿠션 컷  
옐로 다이아몬드로 독보적인 품격을 자랑하는  
옐로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퀄리티 높은  
다이아몬드와 카팅 및 세팅 기술로 화려함과  
반짝임을 극대화했으며, 총 2.01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와 2.3캐럿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아이론 컬렉션 페어 셰이프 옐로 다이아몬드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클래식하고 모던한  
느낌의 올 펠트 소재 코트 가격 미정 **샤넬**.



(위부터)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쿠션 컷 다이아몬드가  
신물하지만 독보적인 존재감을 전하는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소피드**, 사이드에는 총 0.33캐럿의 테이퍼드  
바케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가운데는 영롱한  
빛을 발산하는 하트 모양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그라프 5.05캐럿 하트 셰이프 다이아몬드 프로미스 링  
가격 미정 **그라프**.



(왼쪽부터 차례대로) 메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 사이드 스톤을 배치해 3개의 다이아몬드가  
자연스럽고 여성스러운 무드를 부각하는, 총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베로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타사키**, 총 1.1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소재의 티파니™ 세팅  
웨딩 링 가격 미정 **티파니**, 플래티넘 소재에 약 1캐럿의  
쿠션 컷 다이아몬드 1개와 0.52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8개를 세팅한 조세핀 애플라 플로럴  
솔리테어 링 가격 미정 **쇼메**, 오디세우스의 아내이자  
굳은 인내와 지혜를 지닌 그리스로마 신화의 인물인  
페넬로페에게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링으로, 총 0.3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화이트  
골드 소재로 완성한 페넬로페 링 8백만원대 **무엘라티**.





(여자) 화이트 골드에 아이코닉한 포스텐 모티브에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미디엄 사이즈 포스텐 링 5백52만원 **프레드**. 모던한 큐브 디자인의 밴드에 0.57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솔리테어 스타일로 세팅한 아이스 큐브 솔리테어 7백45만원 **쇼피드**. 파베 세팅한 버클과 다이아몬드로 완성하고 케이블 브레이슬릿을 매치한 포스텐 브레이슬릿 4천3백32만원 **프레드**. 심플한 밴드에 큐브 디테일로 기하학적 디테일을 더한 아이스 큐브 밴글 8백26만원 **쇼피드**. (남자) 라지 사이즈로 볼드한 인팩트를 준 화이트 골드 소재의 포스텐 링 6백28만원 **프레드**. 별도의 잠금장치 없이 착용 가능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아이스 큐브 밴글 9백79만원 **쇼피드**. 화이트 골드 소재의 볼륨감 넘치는 버클이 포인트인 포스텐 브레이슬릿 XL 모델 3천80만원 **프레드**.



(남자) 회전하는 모티브를 담은 디자인으로 경쾌한 사랑의 기쁨을 표현한 포제션 컬렉션의 링. 18K 로즈 골드 밴드에 브릴라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해 포인트를 주었다. 3백60만원대 **피아제**. 장미 줄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의 화이트 골드 소재 밴드에 다이아몬드 0.11캐럿을 세팅한 브아 드 로즈 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로즈 골드 브레이슬릿에 0.09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중앙에 세팅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1천3백만원대 **피아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3.29캐럿을 파베 세팅해 화려함과 우아한 감성을 더한 브아 드 로즈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여자) 화이트 골드 밴드에 다이아몬드 0.58캐럿을 파베 세팅해 반짝임을 더한 브아 드 로즈 링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중앙 부분이 회전하는 로즈 골드 밴드에 0.03캐럿 다이아몬드 1개를 중앙에 세팅하고 총 약 1.06캐럿의 81개 브릴라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한 포제션 링 1천4백만원대, 로즈 골드 소재에 총 약 0.43캐럿의 24개 브릴라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0.09캐럿의 브릴라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세팅한 포제션 브레이슬릿 1천9백만원대 모두 **피아제**. 장미 줄기를 형상화한 디자인의 18K 화이트 골드 밴드로 이뤄진 브아 드 로즈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남자) 로즈 골드 소재에 나선을 따라 스트드를 더하고 가장자리에는 블랙 세라핀을 세팅한 비제로원 0어링 5백92만원 **불가리**. 밴드의 가운데 색상이 회전하는 독특한 디자인의 옐로 골드 소재 벨 에포크 링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세라핀 세팅으로 포인트를 부여한 비제로원 락 2밴드 링 4백29만원 **불가리**. 연꽃과 포옹을 의미하는 자물쇠 모티브의 옐로 골드 소재 하프 파베 티파니 락 링, 18K 옐로 골드 소재로 심플하고 모던한 감성을 더한 티파니 락 밴글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로즈 골드 소재에 블랙 세라핀 디테일을 더한 비제로원 락 브레이슬릿 1천2백90만원 **불가리**. 옐로 골드 소재 벨 에포크 링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니**. 독특한 왕 칼라로 개성을 표현한 코트 포폴린 소재 셔츠 가격 미정 **매종 마르 지엘라**.

(여자)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해 완성한 티파니 락 0어링.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링 모두 가격 미정 **티파니**. 화이트 골드 소재에 중앙 회전밴드 양쪽 밴드에 다이아몬드로 파베 세팅한 벨 에포크 링 링 가격 미정 **다미아니**. 로즈 골드 소재에 나선형 스트드 디테일을 더한 가장자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락 2밴드 링 1천3백40만원 **불가리**. 18K 옐로 골드에 록 부트에만 화이트 골드를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를 하프 파베 세팅한 티파니 락 하프 파베 다이아몬드 밴글 가격 미정 **티파니**. 로즈 골드 소재에 가장자리에만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제로원 락 브레이슬릿 3천1백만원 **불가리**. 회전하는 모티브의 양쪽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우아함을 더한 벨 에포크 링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다미아니**. 2024 가을 컬렉션으로 크레이프 쿠퍼로 소재를 사용해 독특한 매력을 더한 미니 블랙 드레스 6백20만원 **발렌티노**.





(여자) 팬더의 얼굴로 디자인한 화이트 골드 소재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높은 에메랄드, 루는 옻색으로 완성한 팬더 드 카르띠에 아이링 가격 미정, 사랑의 사약을 상징하는 브랜트 아이코닉한 핑크 골드 LOVE 브레이슬릿 6백만원대, 팬더를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밴드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하고 에메랄드로 눈을 완성한 팬더 드 카르띠에 링 2천9백만원대,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케이스에 태왕 광신 모티브 브러시드 다이얼로 화려함을 부각한 팬더 드 카르띠에 워치 가격 미정, 옐로 골드 밴드에 옻색과 에메랄드 세팅으로 팬더의 눈과 코를 완성한 팬더 드 카르띠에 브레이슬릿 1천2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레이스로 섬세하게 제작한 롱 드레스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남자) 42×31mm로 한층 더 커진 리지 사이즈의 옐로 골드 케이스에 블루 사파이어 크리스탈, 실버 미란 다이얼, 검 모양의 블루 스틸 핸즈 등 팬더 워치의 상징을 담은 팬더 드 카르띠에 워치 가격 미정 **까르띠에**, 오버사이즈 칼라에 롱 큰 소매가 엮여진 실크 셔츠를 완성하는 블랙 셔츠 가격 미정 **보테가 베네타**.

(위부터 차례대로) 18K 5N 핑크 골드 케이스에 섬세하게 반짝이는 화이트 마더오브멜로 우아한 풍격을 더한 다이얼이 특징이다. 베젤과 라그에는 76개, 크리스탈에는 17개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트래디셔널 파페주얼 캘린더 울트라-씬 1억3천5백만원 바세론 콘스탄틴**, 각 0.19캐럿의 7개 무빙 다이아몬드가 자유롭게 춤을 추는 듯한 실크엠티를 연출한다. 실버 컬러의 기묘세 패턴을 다이얼에 입혔으며, 로마자 인덱스가 돋보이는 해피 스포츠 7천54만원 **소파드**, 33mm 스틸-골드 케이스에 마더오브멜로 다이얼의 조화가 여성스러우면서 은은한 무드를 자아낸다. 1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하고 퀵츠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불가리 불가리X리사 워치 1천1백30만원 **불가리**, 39mm 케이스에 총 1백64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한 자태를 자랑한다. 여가 에 다이얼에도 무려 4백31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에 영롱함을 선사한다. 5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HUB1710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스피릿 오브 박탱 원클릭 킹골드 화이트 주얼리 9천74만원 **위블로**.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비저로일 락 아이링 1천1백30만원 **불가리**, 로즈 골드 소재의 밴드 2개가 하나로 연결된 디자인이 매력적인 투게터 링, 총 0.4캐럿의 36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포멜라토**, 지름 38mm 문사인™ 골드 케이스에 52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하게 장식한 크로노그래프 워치 스피드마스터 6천9백만원대 **오메가**, 울 소재의 더블브레스트 블랙 재킷 가격 미정 **지방시**.





(왼쪽부터 차례대로) 6시 방향의 특허 받은 대형 날짜창과 0.007초 만에 구현되는 즉각적인 대형 날짜창 점프가 특징이다. 42.5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를 갖추었으며, 약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파일럿 빅 데이트 플라이백 1천8백43만원 **제니스**. 40mm 5N 18K 로즈 골드 케이스가 클래식한 느낌을 전하는 동시에 은은한 프로스티드 실버 컬러 다이얼이 치분한 무드를 부각한다. 약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하우스 독점 칼리버 L844.5를 장착한 론진 마스터 칼렉션 GMT 2천1백90만원 **론진**.



(위부터 차례대로) 독일 럭셔리 모빌리티 브랜드 브라우너스와 협력해 탄생시킨 스텔레토 워치로 브리시드 에코 티타늄 47mm 케이스가 남성적인 강인함을 보여준다. 3시 방향엔 날짜창, 9시 방향엔 스몰 세컨즈가 위치하며, 무려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오토매틱 기계식 P.4001/S 칼리버를 장착한 섬머자블 S 브라우너스 e티타늄™ 7천1백만원대 **파넬라이**. 총 약 0.58캐럿의 90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화이트 골드 소재로 41mm 케이스가 깨끗하고 도화적인 무드를 배가한다. 자체 제작 910P 울트라-신 기계식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알티몰라노 워치 가격 미정 **피아제**. 총 1백72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티타늄 45mm 케이스가 시선을 끌어모으며, 셀프 와인딩 크로노그래프 플라이백 기능을 갖춘 무브먼트를 탑재한 상블루 II 티타늄 파베 7천75만원 **워블로**. 18K 화이트 골드 소재 40mm 케이스를 갖추고, 손으로 완성한 엔진 타닝 홈네일(hobnail) 패턴이 12시 방향 실버드 골드 다이얼의 매력을 부각하며, 10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스몰 세컨즈를 더한 브레게 트래디션 오토매틱 세컨드 레트로그레이드 7097 5천8백34만원 **브레게**.

골드와 브라운 PVD 소재가 어우러져 대조적인 실루엣을 선사하는 파트로 클래식 라지 웨딩 밴드 4백만원대 **부세론**. 1950년대 프랑스 공군을 위해 고안한 타이 칼렉션에서 영감받은 워치로 42mm 스틸 케이스에 최고급 민간용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한 타이 XX 크로노그래프 2067 3천1백89만원 **브레게**. 탄탄한 소재와 각 잡힌 어깨 라인으로 데일리링의 진수를 보여주는 2024 가을 칼렉션 남성 블랙 재킷 4백10만원 **발렌티노**.

모델 **다사, 황(JIS MODEL)**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아름**  
어시스턴트 **김보민**  
에디터 **성정민, 윤지경**

샤넬, 샤넬 화인 주얼리  
080-805-9628,  
www.chanel.com  
그라프 02-2150-2320  
피아제 1668-1874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쇼페 02-3442-3359  
부세론 02-3440-5613  
불가티 02-6105-2120  
소파드 02-6905-3390  
타사키 02-3461-5558  
타파니 1670-1837  
프레드 02-514-3721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다이아니 02-515-1924  
가르피에 1877-4326  
포폴라토 02-3143-9486  
바쉐론 콘스탄틴 1877-4306  
오메가 02-6905-3301  
파넬라이 1670-1936  
워블로 02-540-1356  
브레게 02-6905-3571  
제니스 02-3479-1805  
론진 02-3479-1940  
부세론 02-6905-3322  
발프 로렌 칼렉션 02-3467-6560  
돌체&가바나 02-3442-6888  
YHC 02-788-6202  
매종 마르자텔라 02-3107-8061  
발렌티노 02-2015-4655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5-2250  
보태가 베네타 02-3438-7682  
자왕시 02-546-2790



(왼쪽부터 차례대로) 둥근 디자인과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스타드 디테일의 조합이  
 영한 감성을 선사하는 랑스타드 로퍼 1백53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디니**, 문의 02-  
 2015-4655. 우아하고 슬림한 디자인이 돋보이며, 100% 브라질 가공 카프스킨  
 으로 제작하고 로고를 새긴 골드 도금 메탈 장금장치를 더한 브라질 카프스킨 로퍼  
 1백57만원 **플체렌가리버디니**, 문의 02-3442-6888. 유연한 레더 소재로 제작했  
 으며, 하우스의 시그니처인 홀스빗 디테일이 눈길을 사로잡는 홀스빗 블랙 모카신  
 1백48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앞코의 시크한 포인트가 특징으로, 송  
 아치가족이 편안한 착용감을 주는 도베르 가격 미정 **페라카도**, 문의 02-3430-  
 7854. 우아한 광택 마감에 수조의 매끄러운 테이퍼드 디자인에 생가를 붙여넣으  
 며, 애플 트라이앵글 로고 장식이 특징이다. 신었을 때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  
 는 페이퍼트 가죽 슬림한 슈즈 1백43만원 **프라다**, 문의 02-3442-1830. 클래  
 식한 실루엣이 단정하면서도 도화적인 멋을 지니는 자이비 레이스업 캠프 가격  
 미정 **틀 포드**, 문의 02-6905-3534 에디터 **윤자경**



# Step to Shine

깔끔한 실루엣에 심플한 포인트를 갖춘 맨 드레스 슈즈 7.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아이스버튼 신장링

# Perfect Weekend

즐거운 주말, 교외로 나설 때 이 가방이면 충분하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갖춘 위켄드 빅백.

photographed by **oh hyeun sa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골프장에서 영감받은 컬러가 클래식하면서도 대담한 매력을 지니었다. 카우하이드 가죽 소재의 밴드와 상단 핸들로 아이코닉한 실루엣을 강조한 키를 반들리에 50 가격 미정 **루이비통**, 문의 02-3432-1854. 한 면은 패턴  
 스트라이프 모티브의 라이트 블루 컬러 자카드 패브릭, 다른 면은 아이코닉한 FF 모티브로 이루어진 리버시블 디자인이 특징인 라지 롤 2백만원대 **켄디**, 문의 02-544-1925. 평한 질러감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완충장치가 달린 속과 베어링을 장착  
 한 휠 덕분에 안정적이고 편안한 움직임을 보장한다. 폴리카보네이트 소재의 리모와 에센셜 트렁크 플러스 파파야 1백96만원 **리모와**, 문의 02-546-3920. 촉감이 부드러운 레더 소재와 소지품을 바로 꺼낼 수 있는 외부 포켓 구조가 장점인 소프트  
 미디엄 더플백 2백96만원 **몽블랑**, 문의 1877-5408. 시그니처인 스트라이프 패턴이 스포티한 무드를 더하고, 전면의 로고가 심플한 멋을 배가하는 로고 프린트 인조 가죽 보스턴백 화이트 58만원대 **보스**, 문의 02-2210-5154. 하우스의 아이코  
 닉한 더블 G 패턴이 돋보이며, 가방 내부가 깊어 뛰어난 수납력을 자랑하는 펄 디테일의 GG 수프림 미디엄 더플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521. 전면을 시그니처 로고로 은은하게 장식해 단정한 멋을 부각하는 블랙 맥시 디올 오블리크 자  
 카드 위켄더 40 백 가격 미정 **디올 맨**, 문의 02-3280-0104 에디터 **윤자경**



아이스버튼 신장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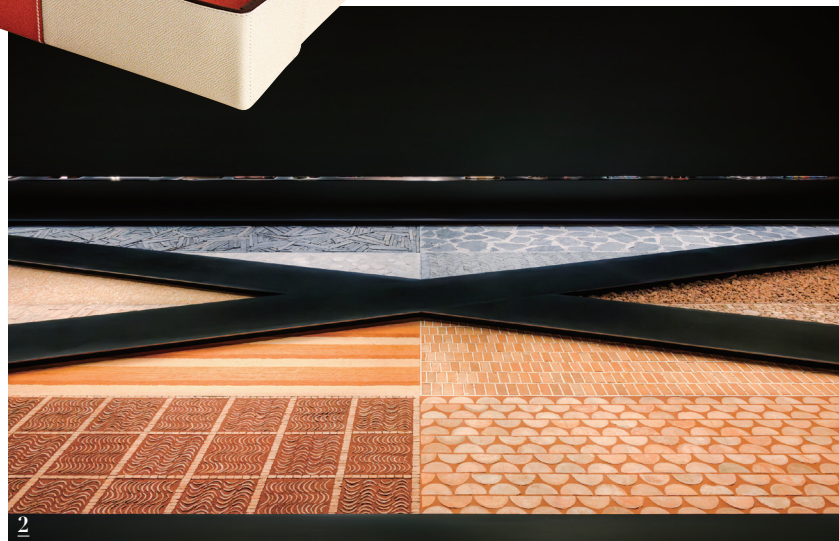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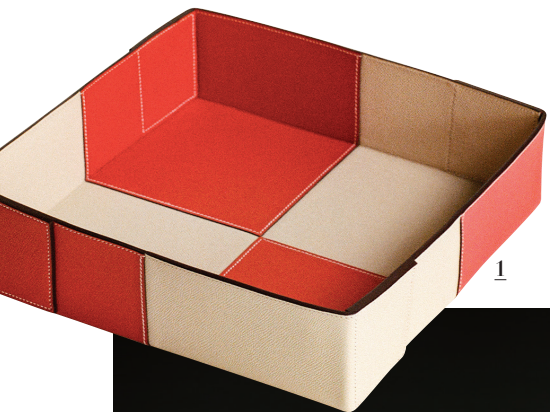




1 FF 로고와 화이트 컬러가 조화를 이루는 사스루 파티션이 공간을 분리해 신제품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순수한 분위기를 더했다.  
2 편안하면서도 감각적인 컬러감이 돋보이는 베드.  
3 직선형 디자인과 구스다운 충전제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볼륨감이 대의를 이루는 소호프트(Sohoft).



펜디 까사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실비아 벤투리니 펜디가 하우스의 비전을 바탕으로 독특함과 영동함이라는 색다른 요소를 추가해 새로운 컬렉션을 선보였다. 부티크 디자인은 펜디의 비전과 콘트로벤토(Controvento)의 기술력을 결합해 FF 로고에 대한 획기적인 해석을 제시하며 이번 뉴 컬렉션의 제품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3차원 형태로 렌더링한 콘트로벤토의 새로운 모듈형 소파, 펜디 F-어페어(FENDI F-Affair)부터 토안 응우옌(Toan Nguyen)이 선보인 바 있는 소호(Soho)의 특징을 고스란히 유지하면서 완벽한 모듈러 디자인과 텍스타일 버전 옵션을 추가한 소호프트(Sohoft),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며 지극히 편안한 감각을 선사하는 레이지 오티비아(Lazy Ottavia)까지 다채로운 가구 라인을 선보였다. 또 마르코 코스탄치(Marco Costanzi)의 벨룸(Velum) 램프가 플로어 램프, 테이블 램프 또는 독서등, 두 가지 버전으로 새롭게 등장했다. 진화하는 스타일에 대한 연구와 아이코닉한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 완성한 새로운 컬렉션으로 차별화된 펜디의 라이프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



1 외부와 내부 모두 애플 카프 스킨으로 제작된 다비(Derby) 센터피스. 2 벽돌, 상자, 슬레이트, 목재, 압착한 흙처럼 가공하지 않은 원재제로 꾸민 에르메스 전시장.  
3 애플 카프 스킨으로 제작된 버킷(Bucket). 4 상류한 컬러와 천연 가죽 리본, 코튼 타이 패튼이 특징인 트레사주 에퀴스트르(Tressages Équest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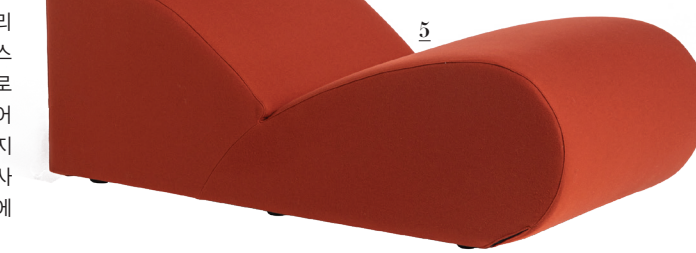
## HERMÈS

이번 에르메스 홈 컬렉션은 '대지(ground, the earth)'라는 주제로 전장품을 완성했다. 벽돌, 상자, 슬레이트, 목재, 압착한 흙같이 가공하지 않은 원자재를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실크 자지(Jockey's Silk Jersey) 패턴으로 전사해 사람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클래식한 제품과 새로운 컬렉션을 한데 모아 오히려 조화가 돋보였다. 새롭게 출시한 아이템 중 다이아프종 데르메스(Diapason D'Hermès)의 라운지 체어는 스튜디오 에르메스(Studio Hermès) 고유의 현대적인 감성이 묻어나는데, 가죽 시트와 알루미늄이라는 대비적인 소재를 사용하는 동시에 심플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완성했다. 그리고 최초로 하우스의 마구 제작 및 가죽 작업 노하우를 직접 활용한 오브제 라인도 선보였다. 블랭킷, 바스켓, 버킷, 테이블 센터피스 등 모든 오브제에 사용한 소재는 각 이카기브 오브제 파스의 구조, 스케일, 색상 및 기하학적 형태에서 영감을 받았다. 양쪽의 컬러 가죽 스트랩에 손으로 직접 구멍을 내고 스타킹해 바스켓을 완성했으며, 가죽 상감세공 기법으로 마무리한 테이블 센터피스에는 그래픽 모티브를 가미했다. 유연한 가죽을 견고한 오브제로 변신시키는 장인들의 오래된 노하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섬세한 붓 터치로 완성한 27피스 구성의 트레사주 에퀴스트르(Tressages Équestres) 디너용 식기 세트는 말과 가수, 그리고 이들의 유대감을 상징하는 디자인이 돋보이며,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릴 듯하다.



## LORO PIANA

로로피아나는 이탈리아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치니 보에리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로로피아나 밀라노 본사가 자리한 코르티에 델라 세타(Cortile della Seta)에서 치니 보에리에게 바치는 헌사(A Tribute to Cini Boeri)를 의미하는 설치물을 통해 치니 보에리에게 경의를 표했다. 전사에서 선보인 모든 작품은 엄선한 로로피아나 인테리어 패브릭으로 장식했다. 보물로 채우는 캐시미어와 실크 소재의 부드러운 캐시퍼(Cashfur)로 제작해 1백 개 한정 스페셜 컬러 시리즈로 선보인다. 모듈식 스트림스 소파의 소재로는 두 가지 색상의 염색하지 않은 캐시미어 원사를 사용하고, 스트림스 침대와 보보랄렉스 안체어는 천연 탄력성과 내구성을 갖춘 티에폴로(Tiepolo) 울로 완성했다. 한편 보보 안체어는 로로피아나의 시그니처 쿠멜(Kümmel) 색상의 캐시미어 세르피로 걸 천을 씌웠다. 페코렐레는 뉴질랜드 메리노 양의 어두운 색상 양털을 가공해 얻은 독특하고 광택이 나는 페코라 네라(Pecora Nera®)로 걸 천을 씌운 제품으로, 두 가지 색조를 통해 또 다른 재미를 만들어낸다. 어두운 색상 가운데에서 밝은 색조를 띠는 페코렐레는 로로피아나가 울 원사를 채취할 때 실제 양 떼에게서 발견했을 때처럼 눈에 띄는 부드러운 양털을 연상시키는 체어다. 디자이너인 치니 보에리의 작품과 비전을 기리는 동시에 로로피아나의 아이덴티티와 헤리티지를 느낄 수 있다.



1,2 로로피아나 인테리어 패브릭으로 장식한 소파, 안체어를 전사한 행잉 샹들리어.  
3 독특하고 광택이 나는 페코라 네라로 걸 천을 씌운 페코렐레.  
4 두 가지 색상의 염색하지 않은 캐시미어 원사로 완성한 모듈식 스트림스 소파. 5 탄력성과 내구성을 갖춘 티에폴로 울로 제작된 보보랄렉스.

# 2024

세계 최대 규모의 가구 박람회인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박람회 개최 기간에 도심 곳곳의 팔라초와 쇼룸 등에서는 여러 패션 브랜드가 저마다의 방식으로 리빙 컬렉션을 선보인다. 그중 〈스타일 조선일보〉가 주목하는 패션 브랜드의 리빙 컬렉션 하이라이트.

다젤은 상징적인 레드와 실버 컬러를 사용한 '레드 테이크오버와 실버 돔' 콘셉트 쇼룸을 공개했다. 레드 테이크오버 룸은 옷걸이를 한 멜트(Melt) 세라믹 타일과 진홍색 카펫으로 덮여 있으며, 한 면은 다젤 리빙 with 로레스(Lodes)의 새로운 조명 디자인을 보여준다. 튜브 모양의 모듈러(Modular), 원뿔 모양 것이 있는 크로스(Cross) 램프 등 새로운 실루엣과 기존 조명 컬렉션까지 만나볼 수 있다. 그리고 붉은 터널을 지나면 3D 금속 은박으로 장식한 공간으로 이어진다. 가구는 모로소(Morosio)와 협업해 완성했는데, 특히 둥근 모양의 듀플(D-uffie) 소파를 주목할 만하다. 톱툼 베개와 팔걸이 부분의 벨트 디테일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스카볼리니(Scavolini)와 함께한 겐 투게더(Get Together) 주방이 정점을 이룬다. 대형 거울이 압도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산업용 화색 램프아라운드 캐비닛이 대담한 다젤 리빙을 상징한다.

1 대형 거울을 배치해 압도적인 무드를 자아내는 겐 투게더 주방.  
2 낮은 실루엣의 퍼프-D 체어를 선사한 공간.



에트로 홈 인테리어는 1960~70년대의 재발견과 현대사의 코드에 대한 탐구를 결합한 여정을 선보였다. 심플함이 돋보이는 가구는 하우스의 특징인 맥시멀리즘과 대조를 이루며, 시대와 스타일의 믹스 매치를 통해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했다. 전시 공간 곳곳에는 최근 쇼에서 선보인 패브릭과 질감 있는 소재, 풍성한 프린트가 특징인 업홀스터디 아이템을 전시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소파, 안체어, 침대로 구성된 퀸타나(Quintana) 컬렉션으로 아늑한 형태와 우아한 라인이 특징이며, 카피토네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시간형 효과의 팔링으로 장식해 모던하게 재해석했다. 또 새롭게 추가한 가구는 과거에서 영감을 받아 래커 파니시와 채도 높은 컬러를 사용한 대적 면모를 선보였다. 기존 파이프(Piping) 컬렉션에서도 같이 튜브 형태의 요소들은 의자, 안체어 및 테이블의 구조와 프로파일을 구성하며 우드 에센스 및 패브릭과 결합했다. 조명은 토템 형태의 램프와 상들리에가 실내에 은은하면서도 풍부한 빛의 악센트를 선사한다. 이러한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디스(Dise) 컬렉션으로, 미니멀한 라인과 장식적인 램프 세이드로 스탠드의 세련된 분위기를 강조한다. 에디터 윤지영



1 심플함이 돋보이는 가구의 라인과 대조되는 하우스만의 맥시멀리즘 패브릭이 돋보이는 퀸타나 컬렉션. 2 과거에서 영감을 받아 래커 파니시와 채도 높은 컬러를 적용한 파이프 컬렉션의 의자.





팔라완의 진주 아만폴로(Amanpulo)

# divinely serene

섬을 통째로 '보금자리'로 삼는 아만폴로(Amanpulo)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팔라완(Palawan)의 보석 같은 리조트다. 정확히는 팔라완 북부 쿠요(Cuyo) 군도의 산호초로 둘러싸인 파말리칸섬(Pamalican Island)에 자리하는데, 프라이빗 경비행기로만 오갈 수 있다.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저공비행을 하면 가뿐히 도착할 수 있는데, 마치 알라딘의 마법처럼 그 짧은 이동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하얀 모래가 펼쳐진 5.5km의 고운 해변을 걷는 바다는 투명에 가까운 맑음을 품고 있고, 연한 청록색을 비롯해 말로 형용하기 힘든 아름다운 색채의 스펙트럼을 뽐내낸다. 게다가 잔잔하고 고요한 분위기의 바다라서 지그시 바라보고 있노라면 절로 '멍 때리거나 명상' 무드에 돌입하게 해준다. '평화로운 섬'이라는 뜻의 이름이 찰떡궁합인 섬이다.

'아만(Aman)'이라는 브랜드가 럭셔리 여행에 조용하게 지각변동을 일으키던 초기인 1993년 문을 연 아만폴로(Amanpulo). 요즘은 도심형 리조트도 선보이고 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만은 대중교통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을 만큼 인적 드문 외딴섬이나 사막 같은 대자연 속에 호젓하게 자리 잡는 걸 고수했다. 그러니 7천6백여 개 섬으로 이뤄진 커다란 군도의 나라 필리핀에 리조트를 열었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 많은 섬 중 아만이 택한 파말리칸섬(Pamalican Island)은 마닐라에서 남서쪽으로 36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마닐라 노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내리면 별도의 격납고를 갖춘 인근 라운지에서 출발하게 된다. 14인승의 양중맞은 프라이빗 제트기(파트너 운영사는 IAD를 타고 파말리칸섬으로 향하는 1시간 남짓한 여정은 그 자체로 예쁜 추억이 될 수 있다(출지만 않는다면). 저공비행이라 하늘길에

서 답을 수 있는 풍경은 커다란 풍선이라도 타고 두둥실 날아다니며 세상 구경하는 듯한 설렘을 안겨준다. 물살물살 떠 있는 하얀 솜사탕 같은 구름 덩어리들은 하늘 위 또 다른 세상을 이루고 있고, 알록달록한 지붕을 두른 집들은 위에서 내려다보면 빨강, 초록, 파랑의 작은 보석들을 박고 그 주위엔 금테를 두른 레고랜드를 떠올리게 한다.

**구름길을 지나 만나는 또 다른 세상, 기다리게 펼치진 보석 같은 섬, 파말리칸 아일랜드**  
신기하게도 파말리칸섬에 다가가수록 밀도 낮은 등성등성한 느낌의 구름들이 시야에 들어온다. 원근감이 교장 난 듯 알개 깔린 구름 위로 베가 다니는 느낌의 풍경이 재미나다. 아욱고 기다란 섬을 따라 날씬하게 뻗은 백사장이 보이고, 경쾌하게 착륙한 활주로 옆에는 나란히 서서 손을 흔들며 아

만폴로식 환영을 해주는 직원들을 마주한다. 7, 8월은 비가 자주 온다지만 '날씨'의 요정이 비호해준다면 쾌청한 하늘에 잔잔한 바다, 그리고 귀를 간지럽히는 듯 상쾌한 바람도 만날 수 있다. 밤에만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아침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하게 갠 날씨를 접하게 될지는 누구도 모른다(운 좋게도 이런 복을 실제로 누렸지만, 그래도 여름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피하길 권한다). 어차피 외출을 줄이더라도 아만의 자연 속 리조트들이 대개 그렇듯 숙소에서 굳이 나가지 않아도 웬만한 식도락과 볼거리, 즐길 거리를 섭렵할 수 있다(화덕 피자 주문도 가능하다). 아만폴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숙소가 있는데, 하나는 현지어로 작은 집을 뜻하는 카시타(casita)로 기준 인원이 2명(최대 3명)이다. 이 범주 내에서도 해안으로 가는 전용 길이 있는 '비치 카시타', 숲에 자리 잡은 '힐사이드 카시타'나 '트리톱 카시



타, 그리고 각각의 유형에 플랜지 풀까지 갖춘 업그레이드형 카시타도 있다. 좀 더 인원이 많다면 주방과 전용 셰프 겸 집사까지 대동하는 프라이빗 빌라도 있다(18채만 있다). 아만폴로가 추구하는 여러 덕목 중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꼽는다면 '독립성'이다. 예컨대 카시타 내의 욕실은 바깥으로 이어지는 문과 햇살이 들어오는 창, 넉넉한 욕조와 원형 탁자까지 놓인 또 하나의 방처럼 분리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외출할 때도 객실마다 제공하는 잠깐의 미니카를 타고 다니면 되므로 이동이 자유롭다. 간단히 페달로 작동하는 이 전용 클럽 차량은 '장롱 면허'를 가진 필자도 노련한 드라이버가 된 듯 섬을 탐색하고 다니도록 도와준 고마운 존재였다.

## 이무것도 안 해도 행복하지만, 어느덧 스스로 찾고 즐기도록 만드는 마법

수려한 자연에 둘러싸인 수십 채 숙소와 부대시설만 존재하는 85ha의 섬에서 '밀도'를 느끼기는 어차피 힘들지만 아만폴로의 평온한 독립성은 야외 활동에서도 빛을 발한다. 카약, 패들 보트, 스쿠버다이빙, 세계적 수준의 카이트 서핑 등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워터 스포츠는 물론 테니스, 풋살, 요가 등의 활동은 저마다의 매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저 조용히 바다 위에 유유자적 뜬 채 독서나 음악 감상, 명상에 몰입하는 데 적격인 카와얀 바(Kawayan Bar) 경험도 빼놓을 수 없다. 카와얀은 현지어로 '대나무'라는 뜻의 단어. 유연하고도 강한 대나무로 만든 물 위의 뗏목 같은 휴식 공간은 팔라완 원주민들이 수공예 기술로 만드는데, 바라는 명칭으로 알 수 있듯 손님의 허가를 달래기 위한 간식에 곁들일 맛난 칵테일을 제조해주는 바텐더가 함께 탑승한다. 유난히 맑은 데다 잔잔하고 고요하지만 우울한 느낌은 들지 않는 청신한 바다 풍경을 '독대'하고 있노라면 명상적인 분위기로 이끌리게 된다(단체로 15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육지에서 독서 삼매경에 빠지고 싶거나 로컬의 정수가 묻어나는 필리핀식 다과와 함께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싶다면 클럽 하우스의 라이브러리도 향하면 된다. 아만폴로에는 올데이 다이닝이 가능한 비치 클럽, 신선한 재료와 셰프의 솜씨가 입안에서 바로 느껴지는 일식 요리가 일품인 라곤 클럽 등의 다이닝 공간이 있는데, 근사한 서재와 올데이 미식 공간, 부티크, 그리고 (더운 날씨에는 아주 중요한) 냉방 시설까지



갖춘 클럽 하우스는 섬 내 여러 시설을 오가다 들러만 한 전철후 플랫폼이다. 저마다의 매력이 넘치지만 독특한 정취를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면 동쪽 해변과 서쪽 해변이 있기에 일출과 일몰을 생각해 동산을 잘 필요가 있다. 신기한 점은 어느 쪽 해변이든 오묘한 청록빛 바다를 눈에 담아두고 있노라면, 굳이 물을 묻히지 않았다고 결심했는데도 결국 '워터 스포츠'에 도전하게 된다. 그런데 파말리칸섬에서 수상 스포츠를 즐기거나 바다 풍경을 가만히 응시하다 보면, 늘 시야에 들어오다가 언젠가부터 일종의 '미스코트'처럼 각인되는 아트막한 섬이 하나 있다. 보트를 타고 가면 4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마나목(Manamoc)섬이 다(팔라완의 주도인 푸에르코 프린세사에서 페리로 갈 수도 있지만 굉장히 멀다). 아만폴로 스태프 중 상당수는 마나목 출신이다(인근의 작은 섬들 출신까지 합치면 60~70%). 지역 주민들이 많이 타는 작은 목선으로 출퇴근하는데, 마나목에는 호텔 일을 배우거나 엔지니어링 같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고 한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파말리칸섬의 소유주이기도 한 안드레스 소리아노 그룹(Anscoor)이다(재단에서 운영한다). 아만폴로의 한 젊은 직원은 자신의 증조부와 그 동료들이 소리아노 가문에 마나목을 팔았다는 에피소드를 들려줬다(무려 반세기도 더 된 얘기다). 농담조로 "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라고 말하자 놀랄게도 그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그랬다면 아만폴로가 없었을 것 아니냐"고 답했다. 천성이 긍정적이고 따뜻한 필리핀 사람들이 지닌 삶의 태도가 '피로 사회에서 살아가는 필자에게 복잡다단한 감정으로 다가오게 하는 대답이었다. 그렇지만 자꾸 돌아오게 되는 곳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이 아름다운 섬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긍정성이기도 했다. 글 **고성연**(파말리칸, 마닐라 현지 취재)



1 팔라완 마닐라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위치한 럭셔리 리조트 아만폴로의 수려한 바다와 백사장 풍경. 2 바다 위에 뜬 채 물놀이할 줄랐다 쉬기도 하고 독서나 음악 감상, 명상에 몰입하는 데도 적격인 카와얀 바. 3 언덕 위에 호젓하게 자리한 바다와 숲을 아우르는 빼어난 전망을 갖춘 스파. 4 간단히 패달과 버튼 등으로 작동하는 클럽 전용 차량. 객실마다 1대의 전용 차량. 5 아만폴로에는 숲과 바다 등을 선택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독채 객실이 있는데, 독립성을 배려한 세심한 디자인 철학이 느껴진다. 리조트 전체를 팔라완의 자랑스러운 건축가 프란시스코 마노사가 설계했다. 6 남쪽 해변에서의 피크닉 풍경. 웨딩이나 축복 약속을 비롯해 각종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7 라운지 같은 현지 과일로 채워진 힐링 공간. 아만의 바에는 자체 와인과 증류주도 구비되어 있다. 8 일몰의 정취를 만끽하기 좋은 비치 클럽의 다이닝 공간. 9 아만폴로 스태프 중 상당수가 거주하는 마나목섬. 원주민이 섬에 가서 지역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다. 10 산호초에 둘러싸인 파말리칸섬에서는 수백 년 된 거목이 앞에서 방해되지 않게 해안을 치거나 지켜볼 수 있다. 11 한없이 투명에 가까운 청록(靑靑)하고 해안 절경. 더 키스(Turquoise)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재밌게 어울릴 듯한데, 자연의 조화에 따라 그 색조 내에서 펼쳐지는 스펙트럼도 다채롭다. ※ 1, 6~11 © AMAN ※ 2~5 Photo by 고성연



# Be Unique

컬러와 프레임, 사이즈가 남다른 선글라스로 완성하는 유니크한 룩.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현대적 타치를 담은 독특한 스퀘어 세이프와 브라운 그라디언트 렌즈가 유니크한 스타일을 연출해주는 제니 클리어 02 선글라스 40만원, 선글라스 다리에 끼워 개성 있는 연출을 도와주는 참에르 M 2만3천원 모두 **컨들문스터**, 문의 1600-2126. 플로팅 테이스트 샴푸 프레임에 에이비이티 세이프로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매력을 선사하는 아델리아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 로랑 by 안토니 비카벨로**, 문의 02-545-2250, 브랜드 고유의 럭셔리 캐주얼 스타일이 돋보이는 라온드 판트 세이프의 메달 선글라스 35만5천원 **막스마라 by 다케이**, 문의 02-717-3990, 독특한 육각형 프레임과 퍼플 컬러 렌즈가 유니크함을 선사하는 선글라스 19만1천원 **레이벤 by 애일로룩소티카**, 문의 02-501-4436, 화이트 컬러의 볼드한 캐츠 아이 오버사이즈 프레임이 착용하는 순간 스타일리시한 포인트가 되어줄 스타크 로고 오버사이즈 선글라스 가격 미정 **알렉산더 맥퀸**, 문의 02-6105-2226, 부드러운 곡선의 테가 독특한 미래 지향적 디자인의 초경량 선글라스 71만원대 **프라다**, 문의 080-522-7199, 복고적인 느낌을 풍기는 화이트 프레임에 라이트 핑크 컬러와 스트라이프 패턴을 기미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에디터 **성정민**

이시진/최정민

# SHOW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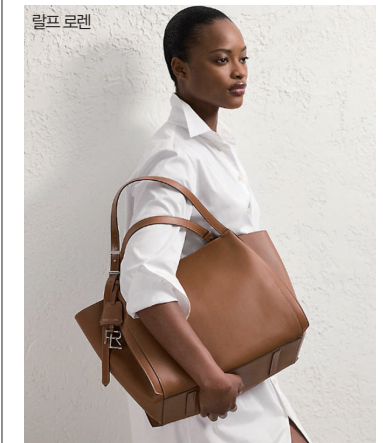
JEWEL & WATCH



일을 적용해 낮과 밤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아쿠아 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GMT 등 27자로 출시했다. 문의 02-548-6020

**브레게** 브레게 뮤지엄 작품전 개최 브레게가 지난 4월 뉴욕을 시작으로 브레게 뮤지엄 소장품을 전 세계 주요 브랜드 부티크에서 선보이는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 7월 18일 신세계 강남 브레게 부티크에서 '디스플레이의 미학(The Art of Display)'이라는 주제로 첫선을 보였으며, 9월 6일까지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79-1008

**블랑팡** 피프티 패업즈 컬렉션의 새로운 모델 공개 블랑팡이 피프티 패업즈 컬렉션에서 새로운 모델 바티스 37mm 컴플리트 캘린더 문페이즈를 선보였다. 블루 컬러 다이얼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폴 세라믹을 사용해 브레이슬릿과 케이스를 제작했으며,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문의 02-3479-1833



**로로피아나** 2024 F/W 광고 캠페인 공개 이탈리아 엔하인드 패션 브랜드 로로피아나에서 2024 F/W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 베이비 캐시어, 바쿠나, 소프라비스, 페코라 네라, 체비엣 등 다양한 소재와 브랜드의 상징적인 영경 퀴 꽃 모티브가 조화를 이루며, 1백여 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로로피아나의 타임리스한 무드를 담았다. 문의 02-6200-7799

**디올** 디올 그루브 백 디올에서 2024~25 F/W 레디투웨어 컬렉션을 위해 디자인한 디올 그루브 백을 출시했다. 캐주얼하면서 세련된 보스턴 형태의 디자인이 돋보이며, 골드 컬러 자물쇠와 크리스찬 디올이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진 별 모티브를 더한 키 링으로 구성했다. 탈착 가능하고 길이 조절 가능한 스트랩이 있어 핸드백 또는 숄더 및 크로스백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280-0104

**리모와** 오리지널 컬렉션 에메랄드 컬러 출시 인목 높은 여행자들이 믿고 찾는 리모와에서 시즈널 컬러를 더한 오리지널 컬렉션의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였다. 기존 오리지널 컬렉션의 캐빈, 체크-인, 트렁크 플러스 등 3가지와 알루미늄 소재의 퍼스널 크로스 보디 백을 천연석인 에메랄드를 모티브로 한 그린 컬러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46-3920

**랄프 로렌** RL 888 카프 스킨 토트백 랄프 로렌은 뉴욕 매디슨 애비뉴 888에 위치한 랄프 로렌의 여성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는 RL 888 라인에서 'RL 888 카프 스킨 토트백'을 출시했다. 2개의 카피로 포인트를 준 조절 가능한 상단 핸들 2개, 탈착식 지퍼 파우치, 시그니처 'RL' 모노그램 천으로 구성했으며, 최고급 송아지가죽을 사용해 세련되고 우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다. 문의 02-3467-6560



**자랑시 뷰티** 프리즘 리브르 루스 파우더 자랑시 뷰티에서 은은한 광채와 매끈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는 프리즘 리브르 루스 파우더를 제한다. 공기처럼 가벼운 포물러로 실크처럼 부드러운 피부를 은은한 광채를 선사한다. 원톤부터 쿨 톤까지, 다양한 피부 톤에 따라 사용될 수 있는 5가지 컬러로 출시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80-801-9500



**샤넬 뷰티** 가브리엘 샤넬 로(L'EAU) 샤넬 뷰티에서 가브리엘 샤넬에게서 영감을 받은 향수, 가브리엘 샤넬 로(L'EAU)를 새롭게 출시했다. 자스민, 일랑 일랑, 오렌지 블라섬, 그라스 투베로즈 등 4가지 화이트 플라워를 담았으며, 달콤하고 은은한 꽃 향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080-805-9638, www.chanel.com



**비올** 틴탄모공 아이스를 세럼 & 더블탄력 아이스를 세럼 비올에서 스킨케어와 마사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아이스를 세럼 라인을 출시했다. 제품에 장착된 스테인리스 스틸 볼과 8종의 탄닌 콤플렉스로 모공 관리가 가능한 틴탄모공 아이스를 세럼, 클라겐과 바쿠치를 성분의 조화로 피부 인티에이지에 도움이 되는 더블탄력 아이스 세럼으로 구성되었다. 문의 1660-4359



시세이도

BEAUTY

FASHION





CHANEL